

예수님 오신날 축하메시지

하얀 빛 가득히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2014년 오늘, 예수의 이름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픔인 세월호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는
분단의 현실을 딛고 남북 거래가 자주 만나며
함께 웃음꽃을 피우도록 합시다.

부모와 형제, 이웃은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내 자신을 예수로 살아갑시다.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갑시다.

불기2558(2014)년 12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